

보완 00.10.22

참고 :조시현, 양현아, 여순주, 하중문, 정진성선생님 등

-.기소장 전체에 대한 보완작업에 대한 의견

급보!!! 영문판 기소장 보완 작업 시급합니다. 막판 힘을 집중하여 꼭 영문판 기소장 읽어주세요. 지금 조시현 교수가 쓰고 자신이 검토하는 것 외에 영어권에서 공부한 분들이 좀 세밀히 검토하고 조언을 남겨주세요. 기소장 부록(한글판 대부분을 부록으로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은 계속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기소장을 쓰고 있는 분 대부분이 전체를 총괄하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의도도 확실히 공유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톤도 색깔도 여러가지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조시현교수가 최종 정리해야 할 것이고 그 전에 약간 제와 하중문교수가 윤색하고 있습니다.

모두 일정에 대해서 헛갈려할 것이라 생각되어 한마디 제가 이해한 대로를 적습니다.

10월 21일에 잡은 감으론 일단 판사단과 만나러가는 10월 24일까지 A4 30장 이내의 영문 기소장 본문을 가져갑니다. 이후 본문기소장과 관련한 부록(지금까지 우리가 본 한국어 기소장은 주제별로 부록처리하고 중요자료도 정리해야 합니다.)을 최종 정리하여 되는 것부터 하나하나 영역하여 11월 11일경에 판사단에게 보낸다는 계획인 것 같습니다. 그 이후 보완 할 것은 다시 보완하여 최종 12월에 판사단에게 제출한다. 이것이 아마 조시현교수생각인 것 같고 정대협에선 더 빨리 처리했으면 하지만 실제 움직여지는 것은 조시현교수가 최종적으로 종합해야 하므로 조시현교수 생각이 관철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는 24일경 갈 때 가져갈 기소장 본문에 빠져 있는 부분 메우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진상규명부분에서는 증인의 증언 사례 메우기, 위안소 체제 등등입니다. 좀더 설명이 되어야 할 부분도 결코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므로 빨리 끝내어야 영역작업에 무리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약속일정에서는 많이 멀어졌지만 마지막으로 멋지게 끝내 봅시다.

-. 증인의 증언을 영문기소장 본문에 넣는 문제에 대해

증인의 증언은 일단 정신대연구소 여러분이 작성해 주신 것을 약간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테 보완해 넣을 곳을 정확히 넣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설명이 중첩되는 듯한 부분이 있어서요. 그리고 기소장이 영문판으로만 되어 있어 정확한 내용이 눈과 머리에 쏙 쏙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문기소장을 읽은 여러분의 의견을 따로 폐쇄게시판에 올려주세요.

TO 조시현 교수:좀 더 다른 것을 정리한 다음 가능하다면 영문기소장에 증인 사례를 넣을 부분에 대한 의견을 내어보지요.

1. 증인 연행방식과 연행지에 대해서--

姜의견:

*이 중 김군자 할머니는 동원대상으로 만든 최철지 순사이름도 나오니까 연행에서 사례로 이용하는 것이 어떨까요? 관특연 사례에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순사등 경찰권력이 동원에 관여함을 보여주는 사례로도 만들 수 있어요. 김복동할머니도 구장 반장등 행정권력기관의 간여를 보여주는 사례이지만.

*이미 북한에서는 함북 청진의 방진위안소도 언급되었고 이외에도 창원, 인천 등을 말하신

분이 있지요? 남한에선 윤두리할머니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붙쳐넣었는데 어딘가에 언급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버마 키타무라 건과 관련해서 문옥주할머니케이스를 간단히 넣을까요? 아니면 문옥주사레참고, 혹은 '문옥주처럼' 식으로 처리하든지. 제1집에 실려 있기 때문에 영문판이 있습니다.

김복동: 경남 양산 출신 1926년생인 피해자 김복동은 만15세가 된 1941년에 구장 반장이 일 본인과 함께 와서 어머니에게 테이신타이로 군복공장에서 3년간 일해야한다고 해서 연행되 었다. 광둥,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지로 끌려다니면서 군위안부로 강요되었고 전쟁말기 엔 간호일을 강요받았다.

김군자: 1926년생인 피해자 김군자는 16세에 강원도 철원 순사 최철지의 수양딸이 되었다. 17세가 된 1942년 3월 최철지가 가라고 해서 심부름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군복입은 계급장 이 없는 군복을 입은 조선남성을 따라 갔으나 그대로 강제로 연행되어 훈춘 진가쿠위안소로 가게 되었고 1년 반정도 이후인 1943년 훈춘근방 고까시로 연행되어 군위안부가 되길 강요 되었다.

박영심: 1921생인 피해자 박영심은 평양 근교에서 17살 때(1938년 3월) 군 병원에 일자 리가 있다는 일본 순사에게 연행되어 난징(南京)에 끌려갔다가 위안부가 됐다. 난징의 금수로 위안소에서 약 3년간 지낸 후 상하이(上海)를 거쳐 버마 拉孟 위안소로 갔다가 2년 후에 다시 송산(松山)로 끌려갔다. 당시 拉孟에 주둔한 부대는 버마방면군 소속의 제 56사단 보병 제 113연대 등이었다. 연합국의 격렬한 공격으로 1944년 9월 초순 수비 대는 옥쇄하였다. 방공호에 숨어있던 박할머니 등 4명의 조선인 '위안부'들은 중국군에 잡혀 곤명포로수용소에 7개월 정도 수용되었다가 북한으로 귀향했다.

하군자: 1928년생인 피해자 하군자는 1944년(당시 만 15세 내지 16세) 위문단을 모집한 다는 조선남자의 말에 응해 한코우 적경리로 강제로 군위안부가 되었다, 당시 이 지역 은 曉부대의 관리감독하에 있었다. (여순주 하상숙것으로 대체요망)

송신도: 제일동포. 1922년생 충남에서 대전에서 16세에 남의 일을 하던 중 일본여자가 일하고 돈 많이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아 중국으로 가게 됨. 무창의 위안소인 '세계관' 에서 처음 군위안부가 되었다. 1938년이다. 일본군이 무창삼진 (武昌, 漢口, 漢陽)을 점 령한 해에 해당한다. 중국에 가서 3, 4년이 지났을 쫓이라고 하니까1941이나 42년의 일 일 것이다. 이후, 岳州를 본거지로 삼고, 부대와 같이 이동하는 위안부로서 종종 '출장' 을 나가게 된다.宜昌, 沙市, 長安, 廬山, 蒲圻

신도가 기억하고 있는 부대는 3사단, 13사단, 40사단, 峯부대(독립혼성 제17여단)등이다. 예를 들어, 1943년2월부터 3월에 걸쳐 전개되었던 강북 전멸작전 때에 제3사단의 사령 부는 廬山으로, 峯부대의 사령부는 악주에 있었다. 岳州의 위안소에서 威寧의 위안소로 옮긴 얼마후, 신도는 일본의 패전을 알았다.

조선내 위안소

윤두리: 1928년생인 피해자 윤두리는 1943년 9월(이때 나이 16세) 부산진역앞의 남부경찰서 순사가 연행하여 군인에게 인계한 후 일본으로 갔다가 다시 부산으로 돌아와 부산 영도에 있던 제1위안소로 가게 되었다. 해방후 귀가

노예화의 사례

제 24사단(雨宮 巽 중장) 산하부대 산 제3475부대의 내무규정(1944년 12월 20일 부터 시행)에는 군인구락부라고 명명하고 있었는데 방어진구내 위안소는 지방인이 전혀 사용하지 못하게 구분하고 유흥비는 일제 현금으로 하게 하고 있었다. 내무규정에서 정해져 있는 위안소 규정의 부칙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영업부의 공유관념을 철저히 하고 점유 관념을 엄금할 것'이라 하였다. 이것은 다른 지역에서 키스를 금한다는 등의 표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위안부에 대한 감정을 엄금하고 성욕 배출 대상으로만 국한시키려는 의도를 분명히 볼 수 있다. 한편 위안부에 대해서는 '업부는 사용자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누구라도 공평을 제1로 하여 사용자로서 최대 奉公하는 것에 염두에 두어 어떠한 사정에 의해서라도 몸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여 봉공에 빠지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만사 세심하게 주의하여 취급하는 것으로 한다'¹⁾라고 하였다. 奉公이라는 표현을 통해 성으로서 국가에 봉사한다는 전근대적 관념을 위안부들에게 주입하려는 의도를 엿볼 수 있다. 이처럼 군위안부에 대해 철저히 노예적 상태를 강요하고 있다.

---좀더 멋지게 해석을 해야 할텐데. 지금은 마음의 여유가 없네

증언 정리하시는 여러분들의 해석과 사례에 기대합니다.

학살사례

*난점:

개별적인 살해에 대한 증언이 쉽게 보여지는데 비해 학살사례는 직접 경험자의 증언을 통해서 구하기 어렵다. 집단적인 학살이 가해진 곳에는 그만큼 비참한 상황이기때문에 생존자가 남아 있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조선인군위안부들의 학살에 대한 언급이 있는 곳은 태평양의 트럭섬이나 연합군과의 접경지역이다. 이러한 지역은 모두 대단히 험한 곳이고 연합군과 일본군의 치열한 접전이 있어 학살이 아니어도 이 인간에 죽임을 당할 수 있었다. 이 때문에 학살에 대해 엇갈린 기술들이 나온다.

*지역의 발음도 확인할 수 있다면 영역의 도움을 위해 영어로 확인해 봅시다.

약 3,000명의 일본군 수비대가 방어하던 버어마와 경계지역인 운남성 등충(등월) 요새는 중국군의 공격을 수개월간 버티다가 드디어 9월 14일 완전 소탕되었다. 몇 명의 군위안부가 있었는데는 이견이 있다. 여기에서 7-15명의 조선인 여성과 아기가 학살되었다.

1) 浦添市사편집위원회, 浦添市史(1984년 발행) 92/문1

**트럭섬 같이 생존자가 없는 곳, 오키나와에서 군인과 더불어 이동 죽음을 강요한 경우 등과 더불어 선박파괴 등에 의해 죽음을 당한 경우 (하중문교수 의견으로는 군위안부들은 근본적으로 민간인이므로 어뢰에 의한 폭파의 위험이 있는 곳으로 민간인을 데리고 가서, 그 민간인들이 죽음을 당하였다면 그것을 확실로 보아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그 부분을 보충해 넣읍시다. 이것은 기소장 원문과 부록에 대 추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옥련, 손판임, 강순애? 할머니 등 선박이 파괴되어 바로 옆의 군위안부 피해자들의 죽음을 경험한 이들 중 시기 장소 등을 좀더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사례를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수송 도중의 강간등 사례

여성들을 위안소로 연행하는 과정에는 피해자의 저항을 막기 위해 인솔자에 의한 고문, 폭행, 성폭행 등이 자행되었다. 위안소에 가기도 전에 선상에서의 강간은 이용수·홍애진 등 피해자의 증언에서 자주 등장한다.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증인과 일본군 피고와의 관련에 관해 A4 3장 분량으로 부록처리할 것 정신대연구소 연구원 여러분들이 도와 주고 있습니다. 토요일10시 이전까지 완료해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1.김복동 2.김군자 3.박영심 4.하군자 5.송신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연행
관군 개입 여지, 폭행 여부
연행 장소, 일본군 책임자, 군에 대한 특기 사항
위안소 형태, 생활 중 군의 가해 여부
패전 당시 상황
기타

강정숙:일단 마음이 바빠 우선 이것 올립니다만 양이 많지요? 일본 기소장에 일본군 책임부분이 언급된다면 굳이 일본군과의 관련 부분을 이렇게 많이 할 필요없는데. 아니라면 할머니 경험을 짝 짝 지우고 가해자 책임부분을 올려야 하겠지요. 오늘은 밤이 되어서야 집으로 오기 때문에 ,,,

기소장 증인 송신도 자료

증인 송신도는 1922년 충청남도 논산군에서 태어났다. 12세에 아버지를 여의고 16세 때, 어머니로부터 결혼을 권유받고, 첫날밤이 싫어 식을 올린 날 밤, 옷만 입은 채 친정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친정에 사는 것도 불가능해서, 증인은 충청남도 대전의 아는 사람 집에 몸을

말했다. 대전에서 자수 등으로 하여 간신히 생활했다.

1938년 중년의 조선인 여성에게 「전쟁터에 가서 일하면 돈을 번다.」 「결혼 같은 거 하지 않고도 혼자서 살 수 있다.」고 권유받았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서 살아가려고 했던 증인은 그 사람의 제안에 응락하였다. 이때에는 「위안부가 되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조선인 여성과 평양까지 갔더니 10대 후반이라고 생각되는 여성들이 다수 모여 있었다. 가는 도중에도 어떤 일을 하는 것인지를 물어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평양에서는 조선인 남성이 데리고 갔다. 국경을 넘어 한코우漢口를 거쳐 발음?武昌으로 끌려갔다. 증인이 武昌에 간 시기는 1938년 말경으로 일본군이 우한武漢공략한 직후일 것이다. 武昌에 도착하여 증인이 끌려간 곳은, 육군전용 군 위안소였다. 군 위안소의 건물은, 기와집의 커다란 이층건물이었다. 원래는 중국인 상점이었던 건물을 개조한 것처럼 보였다. 막 전쟁이 끝난 직후였다. 「위안부」들은 시체 처리까지도 해야만 했다. 증인도 벽에 있는 혈흔을 씻어내는 일을 해야만 했다. 군위안소로의 개조작업은 목수 출신의 군인이 하였다. 이 군 위안소는 「세계관」이라는 이름이었다. 武昌에 도착하자 성병검사를 받았다. 이 시기 처음으로 증인은 자신의 집을 나와 혼자가 되어 일을 하기 위해 멀리까지 왔는데 어떤 것일까 증인은 말할 수 없는 충격을 받았다.

「세계관」의 「주인」은 키가 작은 조선인 남성이었다. 武昌에는 그 위에 「야마토관」 「코토부끼관」이라는 이름의 군 위안소가 있었다. 「세계관」에는 십 수명의 「위안부」가 있었고, 모두 조선인이었다. 그러나 조선어는 사용하지 못하게 하였다. 「위안부」들끼리도 친하게 말하는 것을 금지당했다.

증인은 「세계관」에서도 가장 어렸고 생리도 본 적 없는 아이였다. 처음으로 군인의 상대를 해야만 했을 때, 어떻게 해야만 하는 지도 모르고, 계속 울고 도망쳐 나왔다. 처음으로 증인의 방에 들어온 타카하시 장교는, 증인이 울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아무 짓도 하지 않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 장교는 그것을 사무실에 이야기하여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증인에게 불같은 화를 냈다.

사무실에서 혼이 난 증인은 그곳 지리도, 말도 모르고, 돈도 없고, 기차를 타는 방법도 모른 채, 주위를 군인에게 둘러싸여, 도망치는 것도 불가능하였다. 그래도 막상 군인이 들어오자 너무 싫고 두려워, 또 울면서 도망쳤다. 증인은 업자로부터 뺨을 맞아 코피를 흘리고 식사를 하지도 못하고 좁은 곳에 갇히기도 했다. 그러나 완전히 도망쳐 나가는 것은 불가능했고, 증인은 울면서, 군인의 성욕처리의 도구가 되었다.

군위안소의 「위안부」에게는 군의 허가가 필요했지만, 그 허가가 내리기 전부터 「세계관」에는 군인이 쇄도했다. 군 위안소의 이용자는 군인에 한정되었다. 이때 온 군인은 제6사단, 제9사단 등에 소속된 이들이었다. 제 6사단, 제9사단은 제11군 예하부대로서 당시 제11군 사령관은 오카무라 야스지(岡村寧次 1938.6-40.3, 이후 제6방면군, 지나파견군총사령관에 종사)였다. 그 상급 중지나파견군사령관 하타준로쿠(畑*俊六1938.2-12)였다.

여기서 증인은 「카네코(金子)」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매일, 십 수명이나 되는 군인을 상대를 해야만 했다. 생리를 할 때에도 쉬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특히, 일요일에는 군인이 많았고 군인들은 일방적이고도 야만적인 성적 행위를 하는 자도 있었다. 그러한 생활은 정말 견딜 수 없는 일이었다.

「위안부」들은 너무 지쳐 군인의 요구를 거부하려고 하면, 칼로 위협을 받거나, 맞는 등 폭행을 받는 것이 종종 있었다. 증인의 몸에는 아직 상처가 남아 있다. 그리고 증인의 오른

쪽 귀는 들리지 않는다. 증인의 신체에 남아 있는 「위안부」 시절의 상처이다. 더욱이 자포 자기가 된 군인 가운데에는, 적에게 죽임을 당할 정도라면 여기서 죽고 싶다며, 증인에게 같이 할복자살을 할 것을 강요하는 자도 있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살고 싶은 증인에게 있어서는, 할복자살 강요는 매우 두려운 것이었다.

군 위안부 중에는 결핵, 말라리아, 성병 등 병에 걸린 이도 있었다. 환자는 별도로 마련된 작은 방으로 옮겨졌다. 적의 포탄에 맞아 죽은 자도 있다. 병 때문에 군인의 요구를 거절한 것 때문에 주인에게 맞아, 절망하여 화장실에서 크레졸 원액을 마셔 자살한 「위안부」도 있었다. 목매달아 죽은 「위안부」도 있었다.

군 위안소에서는 「사쿠(콘돔)」의 사용이 의무였다. 그러나, 군인 가운데에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자도 많았다. 그 탓에, 임신된 「위안부」도 많았는데, 임신해도 휴가는 허락되지 않았고, 내쫓기기도 하였다. 증인도 임신했지만, 계속 성행위를 강요당해, 7개월 쯤에 사산되었다. 그 때, 증인은 자신의 방에서 혼자서 출산했다. 겨우 아이의 몸을 증인의 몸에서 꺼낸 때에는, 아이는 포도색이 되어 사망했다.

이렇게 군 위안소에 감금되어, 조직적, 집단적, 지속적으로 강간된 것에 의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회복불능한 정도로 깊게 상처받았다.

증인은 약 3년간 「세계관」에 살았지만, 임신했기 때문에, 내쫓겨, 한코우(漢口)의 해군 위안소에서 세탁·청소 등의 잡일을 하면서 출산한 후, (중국식 발음 확인요)(岳州)(카쿠슈)로 옮겼다. 漢口에서 출산한 아이는 다른 사람에게 보내졌다. 岳州에서도 군 위안소에서의 생활이 계속되었다. 그 외에, 安寧(안니이), 長安(초안), 호킹 등, 각지의 위안소에 끌려갔다.

더욱이 그들의 군 위안소에서 특정 부대 소속으로서 각 전쟁터에 끌려다녔다. 전쟁터에 나가는 것이 두려웠다. 어떻게 두려워해도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부대소속의 경우는 군의가 없었기 때문에 증인이 성병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점차 전쟁 상황이 엄해지게 되어, 증인과 「위안부」들의 생활은 점점 힘들어 갔다.

일본군은 중국군의 포로 살해장면에 「위안부들」을 세웠다. 구멍을 파고, 그 앞에 포로의 눈을 가리고 포로를 군도로 죽이는 것이었다. 이러한 잔학 행위를 본 후에, 증인은 파티에서 술을 따라야만 했다. 또한 부대가 비어서 경비가 허술해지면, 「위안부」도 보초를 서야만 했다. 중국군이 언제 공격해올지 모르기 때문에 공포에 떨면서 생활하였다.

이러한 가혹한 생활을 강요당한 것에도 상관없이, 증인과 그들에 대해 금전적 지불이 거의 없었다. 부대소속의 경우는 명목상의 「급료」조차 없었다. 수입이 조금 있었을 때도 「국방헌금」이라는 이름으로 빼앗아가서 실제로 증인의 손에 남은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한 武昌을 떠난 이후, 각지의 군 위안소를 전전하는 가운데 증인은 漢口에서의 출산을 포함하여 두 번 출산했지만, 생후 짬도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겨야만 했다. 그 외에도 임신했지만, 임신하면 내쫓기기 때문에, 자신 혼자서 민간요법(임신2개월 무렵, 3일간정도 식사를 하지 않고, 어떤 식물의 뿌리를 섞어 마신다)으로 중절을 해야만 했다. 이러한 증인에게 는 자식을 낳는 것도 키우는 것도, 일절 허락되지 않았다.

1945년 8월 증인은 군 위안소에서 일본이 패전을 알았다. 군은 증인과 「위안부」들에게 패전을 알리지 않고 방치했다. 이 무렵 다른 부대(독립 혼성제17여단)에 있던 한 일본군인이 같이 가자고 하였다. 증인은 조선에 돌아갈 방법도 모르고 생명을 지킬 아무런 것도 없는 상황에서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되었기 때문에 살기 위해 그 일본군인 함께 일본에 가 결혼하는 것을 결심했다. 그러나 일본인에 대해 적대적이었던 중국을 벗어나자 증인을 버렸다.

일본군으로부터 방치된 전 「위안부」의 상황은 비참함의 극치였다. 신체의 안전을 위해

중국인과 함께하는 자도 있었다. 중국의 군인에 몸을 파는 자도 있었다. 증인과 마찬가지로 일본인남성과 함께 되어, 일본에 온 조선인 여성도 있었다.

증인은 한 재일 조선인 남성의 소개로 재일 조선인 H가 하고 있는 식당에서 취사 일을 하게 되었다. 이후 H가 사망할 때까지 증인은 H와 함께 생활한 (증인은 H와는 성적관계가 전혀 없었다.). H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H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고 생각해도, 밤마다 술을 마시는 날이 계속되었다. 꿈에는 언제나 전쟁터가 나타났다. H의 사후 가족도 없이, 중국에 두고 와야 했던 두 명의 아이에게로 죄책감을 안고, 혼자 생활했다.

이상처럼 증인은 일본군에 의해 16세부터 23세까지의 7년 간, 「종군위안부」로서 인간의 자유, 성적자유를 철저히 박탈당한 성적 노예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하고, 그 사이 항상 생명의 위기에 시달렸고, 전후에는 조선에 귀국할 방책도 부여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일본에서의 생활을 할 수 없이 해야만 했다.

일본군, 일본정부 책임과 관련한 자료

1) 武昌에 위안소가 개설된 경위

武昌은 1937년 12월에 中支邦 방면군이 남경을 점령한 후 대본영은 1938년 8월 22일에 中支邦 파견군에 대해 「漢口부근의 요지 공략점거」를 명하고, 武漢(武漢은 漢口, 武昌, 漢陽의 세 도시) 공략작전이 발동되었다. 9월 28일 「재 상해 총영사관대리」로부터 「외무장관」에게 연락회의 결정 사항으로서 「『漢口공략후 邦人 진출에 관한 응급처리요강』 송부의 건」이 보내졌다. 이것에 의해, 「3, 거류민 이외의 진출은 복귀희망거류민의 수송에 여유를 살려 후에 진출 후 신속하게 운영을 개시하는 것부터 우선적으로 인정하고, 군대위안부 개설을 위해 진출하는 것은 제한을 두지 않고」로 되어, 신규 진출자였어도 「군대위안소개설」을 위해서라면 우선적으로 인정하려고 했다. 10월 26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주력, 제11군이 漢口를 점령하고, 10월 27일에는 武漢 3진을 완전 점령하였다. 武漢점령 직후 일본군은 「위안소」개설을 사전에 상정하여, 위안소업자에게 특별 편의를 피하였다.

11월 3일에 中支邦파견군의 제2군이 漢口에 입성하고, 漢口·漢陽의 경비를 맡았다. 같은 해 12월 10일자로 출동한 제2군사령부 「제2군 상황개요」의 「제4 漢口 및 漢陽경비」의 3(2) 외출, 위안」에는 「외출은 경비 제1주의에 기초한 인솔외출, 위안소 출입을 위한 외출 이외의 것은 인정하지 않고 위안소는 11월25일로 개시하여 표 제도에 의해 혼잡을 방지하고 황군의 면목을 유지하는 것에 주력하여 초기의 목적을 달성할 것을 믿는다」라고 되어 있는 것부터, 11월 25일부터 위안소가 개설된 것, 또한 군이 표제도 등 운영에도 관여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경위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漢口병참사령부소속의 군의를 지낸 나가자와 켄이치는 「武漢합락과 함께 상해, 남경에서 대기하고 있던 매춘업자들은, 위안부를 데리고 계속 武漢을 목표로 하여, 양자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파견군은 그들을 군수품취급하고, 우선 수송했다」(나가자와 켄이치 『漢口위안소』 50p.). 「쇼우와 13년(1938년) 11월 중순 漢口 병참사령부는, 상급사령부의 지시에 의해 위안소에 함께하는 가옥을 선정하여, 여성들을 데리고가 계속 오는 위안소업자를 입거시키고, 위안소개설까지 하게 되었다」(같은 책 55p)라고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같은 책에 의하면 군은 병참 업무의 일환으로서, 위안소의 이용규정·요금의 제정, 정기적 성병 검사, 漢口위안소 조합의 조직화 등도 포함하여, 위안소의 관리·통제·운영을

하였다. 그 후, 이 漢口위안소는 「그 내용과 규모에 있어서, 支邦과전군 유일의 것이 되어, 패전의 날까지 계속 번성했다」(같은 책 62p) 라고 한다.

漢口의 대안에 있는 武昌의 위안소도, 漢口의 위안소와 거의 같은 시기에 개설되었다고 추정된다.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직후의 11월 30일 현재의 「직업별통계표」(재漢口총사령관)에 의하면, 漢口에서는 「여관요리, 藝妓, 위안소」의 신규본업자가 남17, 구본업자가 남2, 漢口의 신규 「藝妓, 작부, 창부, 기타」가 그 수 「150명」이지만, 이것에 비해 武昌의 「여관요리, 藝妓, 위안소」는 신규본업자가 남33, 武昌의 신규 「藝妓, 작부, 창부, 기타」는 「245명」에 달하고 있다. 이 자료로부터, 漢口에서 위안소가 개설된 거의 같은 시기에 武昌에도 위안소가 새로이 개설되었다는 것, 반드시 「위안부」만으로 한정하지는 않지만 「藝妓, ...」의 사람 수는 漢口를 웃돌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쇼우와 13년 재漢口총영사관 경찰사무상환」등 일본정부의 자료에서도 모두 군위안부는 아니지만 武昌에는 245~292명의 관련 여성들이 있었고 밝히고 있다.

또한, 이미 언급한 군의 나까자와 켄이치는 「武昌과 漢口の 병참 사령부는, 어느 곳도 쇼우와 13년 8월, 武漢 함락과 함께 개설된 것으로, 업무의 종류, 규모는 비슷하고, 위안소도 청구받았다. 경영자는 대부분 내지인이었고, 위안부는 조선인과 일본인 혼합으로 약200명 있었다. 성병검사는 北村군위가 담당하고, 漢口와 마찬가지로 경영도 감독도 했다」(전게서 220p)라고 기록되어 있고, 이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이 같은 武昌위안소 개설의 경위는, 증인이 전술한 것처럼 漢口를 거쳐 武昌에 도착한 것은 武漢공략 후부터 군 위안소가 개설된 사이의 11월경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2)武昌의 위안소 「세계관」

증인이 약3년 간 있었던 武昌의 위안소의 모습은 전술한 대로이다. 武漢공략작전을 수행한 中支邦과전군의 주력인 제11군은, 오카무라를 사령관으로, 제6·제7·제27·제101·제106의 오개 사단과, 쓰다 사단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漢口를 점령후,大本영은 武漢주변지역을 작전의 한계로 하고, 그 이상 전선의 확대를 막기 위해, 작전에 참가한 각 사단은 武漢주변 지역에서 경비체제로 바꾸어, 제2군은 전투서열을 해제, 제2군사령부는 내지 귀환이 되었다. 武漢지구경비를 담당한 제11군 가운데, 제6·제9사단에 대해서는, 『支邦사변록군작전(2)』에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38년) 11월1일, 제6사단에 ... 武昌지구에 작전준비와 경비를 명령. 제 6사단은 武昌지구에 이전하여...」(209p), 「12월 5일, 군의 경비지구의 변경을 명령. ...제6사단은 사단사령부를 武漢대학(武昌)에 두고, 다리 이북의 철도 및 도로의 경비, 崇陽堂에 따르는 지구의 경비, 武昌지구의 경비를 맡음. 제 9사단은 다리 이서의 철도 경비, 어촌 근처부터 상류인 양자강대안의 경비, 카쿠슈 지구의 경비를 맡음. 사단사령부는 다른 곳에 위치한다」(210p). 이 같이 제6사단은 武昌지구를, 제9사단은 武昌 주변지역을 경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증인이 있던 「세계관」은 「군(군인·군속)전용의 위안소」로 「도시 등에서 군이 인가(지정)했던 위안소」에 해당한다. 군은 漢口·武昌의 위안소에 대해, 「위안부」징집·도항으로의 군·헌병대·총영사관의 관여로부터, 군에 의한 업자·「위안부」의 이송·관리규칙·요금·이용시간의 제정, 위안소시설의 제공, 업자·「위안부」의 통제, 군의에 의한 정기적 성병 검사, 부대장교에 의한 관리·감독·경영 관리 등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직접적으로 관계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즉, 漢口·武昌의 위안소는 비록 민영 형태를 취하고 있어도, 「운영에 관해서도 군이 관여하고 있고, 주체는 군이었으며, 민간업자는 그에 따

르는 것에 지나지 않는」(전계서 62p) 전형적인 예였다고 말할 수 있겠다.

*참고자료

在日の慰安婦 裁判を支える會, 「宋信道 訴狀」 『在日元從軍慰安婦, 謝罪.補償請求事件 訴狀』, 1993

김군자 할머니

김군자는 1926년 강원도 평창에서 출생하였다. 딸만 3명 중 맏딸이었다. 농촌에서 보통 정도로 살았으나 딸들 모두 무학. 10세에 부친 사망 후 어머니는 큰집 작은 오빠를 양자로 삼았으나, 양자가 재산을 모두 차지하였다. 11세에 어머니는 딸 셋을 데리고 주문진 친정으로 이주하였다. 둘째는 남의 집에 보내고 어머니는 막내 데리고 친척이 있는 신리라는 곳에 가서 떡 장사 등 하며 살고, 나만 외가에서 3년 살다 어머니에게 갔다. 그곳서 1년 살다 어머니 사망한 후, 주문진 이모집에 있다가 16세에 강원도 철원 최철지(순사)에게 양딸로 가게 되었다. 이모네가 아는 쌀장사 소개로 갔는데 최씨는 첩과 살았다. 거기서 1년 정도살았는데, 수양아버지가 나를 기미코라고 불렀다.

17세인 1942년 3월 수양 아버지 최씨가 시키는 대로 서른 땃썸 되는 한국 남자를 따라감. 그 남자는 군복 같은 옷을 입었으나 군인은 아니었다. 그는 전에도 한번 온 적이 있었으나 아무 것도 모르고 심부름 시키는 줄 알았다. 화물차를 타고 보니까 차 안에 7명의 여자가 다른 40쯤 되는 비슷한 복장의 한국 남자와 함께 있었다. 화물차 바닥에 앉아 하루 낮 하루 밤을 간 듯, 내려서 기다리고 있던 군인 트럭 타고 한참 갔다.

옛날 여관 같은 이층집에 내렸는데, 여자들이 9명인가 더 있었다. 거기가 만주 훈춘이었다. 그곳에 1년 반쯤. 문에는 긴가쿠 이안조라고 간판. 사각형 이층집에 방이 많이 있었다. 나는 1층에 방 1개, 나를 끌고 간 남자가 그 아내와 같이 그곳에서 주인 노릇, 또 다른 한남자도 종업원인지 함께 살았다. 사무실에 주인 남자가 앉아 오는 사람 체크. 그들이 여자들을 때리기도 하고 감시.

도착 후 2, 3일 후부터 군인들이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 거부했다가 귀를 얻어맞아 오른쪽 고막이 터졌고 피가 흐르는 것을 그냥 뒤 지금까지 잘 안 들린다. 토요일 서너시부터 군인들이 오고 일요일은 아침 9시부터 밤 7시까지 많이 왔다. 혼자 오는 경우는 별로 없고 트럭 타거나 걸어서도 왔다. 장교가 인솔해서 조로 왔다. 군인들은 사무실을 거쳐 방방이 줄을 서 기다렸다. 100명이 넘어 바글바글했다. 걸을 수도 없었고 생리 때도 쉬지 못했다. 평일에는 밤에 장교만 와 자고 가기도 했다. 장교는 토, 일요일에도 밤에만 왔다. 많을 때는 한번에 40명 정도 받고 씻지도 못함. 끼는 것 때문에도 아팠다. 샷주는 군인들이 가져오는데 터지기 때문에 안하는 사람도 있었다.

매주 금요일에 검사, 군인 트럭 타고가 군의에게 검사. 막사로 지은 군대 안의 병원에 여자는 우리 뿐. 성병(매독)에 걸려 606 주사도 맞았다. 한 3일 맞았는데 냄새가 났다. 임신도 했으나 유산했다. 기미코 또는 방번호 9번으로 불림. 일본인이 싫어 일본 말은 지금도 절대 안쓴다.

가서 몇 달 안돼 탈출을 기도한 사람이 잡혀와 주인이 본보기로 엄청 많이 때리는 것을 봐 꿈도 못꿈. 아편하는 사람이 이불 등을 내다팔려다 주인에게 들키면 가도기도 하였다. 나는 이후 술집에서 담배를 조금하다 바로 끊었다.

1943년 고카시에는 트럭으로 갔다. 부대가 전방으로 갈 때 따라 갔다. 1층 허름한 빈 집에 7명이 갔다. 주인 남녀와 함께 갔다. 고카시는 벌판, 부대는 까맣게 멀리, 목욕도 물 데워 집에서 했다. 여자들에게 외출은 없었다. 거기서 1년 반 못돼 해방, 스무살이 안됐다.

주인 남자가 돈도 안주고 맘대로 가라고, 7명이 백두산으로 한 보름 걸려 걸어 나왔다. 두 만강을 건너 회령, 계속 걷고, 화물차 타고 하며 한달 여드레 만에 철원. 서울, 술집, 남자 만났으나 부인이 있어 그만 두고, 남의 집 살이와 장사 등을 하면서 살았고 이제 종교에 귀의하였다.

It appears

일본측 조사에 따르면, 1943년부터 2년간 제 733부대 군인 전용위안소에 조선인 위안부들의 위안소가 5채 있었다고 병사 島本重三이 증언, 한집에 10명 정도 여성. 아직 나이 어린 여성도 있었다.

1941년 7월, '관동군특수연습'이라는 이름하에 병력대동원이 있었고 이 때 조선인 위안부 3000명 징집. 당시 관동군 사령관 梅津美治郎(임기 1939.9-44.7)였다. 사령부를 총사령부로 개칭하고, 제1방면군과 제2방면군을 신설하는 등 병력 증강과 조직 개편을 단행하였다. 목단강 제1방면군 사령관 山下奉文중장(42.7-44.9)의 지휘하에, 연길의 제2군이 신설되었다. 제2군 사령관은 上月良夫중장(42.7-43.5)이었다. 그리고 제2군의 골간병단으로서 훈춘주둔대를 모태로서 만들어진 것이 제71사단이었다. 제 71사단장 遠山登중장(42- 패전)이었다.

훈춘 위안소에 대한 공문서는 없지만 일본군 병사와 피해자의 증언, 사진, 지도 등을 통해 보면 분명함. 훈춘강을 따라 조선인 집이 위안소로 20-30채 정도 있었다는 증언. 김군자가 있었던 위안소는 71사단 위안소였을 것으로 본다.

43년경부터 패색이 짙어지며 관동군 예하 사단은 남방으로 점차 진출, 44년 7월 梅津 대신 山田乙三 대장이 관동군 총사령관에 취임. 45년 1월 훈춘 주둔 제 71사단이 대만(제10방면군)에 진출한 직후 2월, 五家子 주둔 제 9 국경수비대는 占賀龍太郎을 사단장으로 제127사단으로 개편하였다. 김군자씨의 증언에 군인들이 전선으로 나가면서, 트럭으로 고카시 위안소로 옮겨갔다는 증언과 일치. 127사단 관할의 위안소였다고 본다. 소련 국경에 근접한 중요한 국경진지에 있던 이 위안소는 축성부대에 의해 건축되었고 일요일에 군인들이 쉼도했다는 축성부대 병사의 증언(『중군위안부 110번』, 39-40쪽)이 있다.